

안식일학교 수업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

넷째 천사 사역
마지막 경고

아프리카 연합

제작: 사역 안식일학교부 넷째 천사 - 마지막 경고

제1과 -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2
제2과 -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	9
제3과 - 회개.....	16
제4과 - 고백.....	28
제5과 - 봉헌.....	33
제6과 - 신앙과 수용.....	39
제7과 - 제자도 시험.....	45
제8과 -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52
제9과 - 일과 생활.....	59
제10과 - 하나님에 대한 지식.....	65
제11과 - 기도의 특권.....	71
제12과 - 해야 할 일 질문으로 해결하기.....	79
제13과 - 주님 안에서 기뻐함.....	85

제1과 -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1장 - 엘렌 G. 화잇.

황금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일요일

1) 하나님은 자신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ROM. 1:19, 20

답: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창조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계시와 마찬가지로 자연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입니다. 자연의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보세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필요와 행복에 대한 놀라운 적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과 산과 바다와 들판을 즐겁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해와 비의 빛은 모두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 줍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서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때가 되면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의 손을 펴서 자비로 모든 생물을 만족시키십니다." (시 145:15, 16)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다채로운 땅에는 썩은 흔적이나 저주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저주와 죽음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법, 즉 사랑의 법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왜 죄로 인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게 하였습니까? 장군. 3:17.

답: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3:17 스페인어 번역 Reina Valera, 1859.

그러나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 3:17). 영형

가시와 엉겅퀴, 즉 여러분의 삶을 수고와 근심의 존재로 만드는 고난과 고통은 죄가 가져온 파멸과 타락으로부터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요한 징계의 일부로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세상은 슬픔과 비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엉겅퀴에는 꽃이 피고 가시에는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월요일

1)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8.

답: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알메이다 개정 및 업데이트 번역).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은 열리는 모든 새싹, 자라는 모든 식물 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로 공중을 채우는 사랑스러운 새들, 완벽하게 공기를 향기롭게 하는 섬세한 색깔의 꽃들, 밝은 녹색의 풍부한 잎사귀로 우뚝 솟은 숲속 나무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드럽고 아버지다운 보살핌과 그분의 갈망을 증거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2) 자연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잠언 2:1, 5.

답: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네게 숨기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분 자신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선언하셨고

동정심.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출 33:18, 19)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곁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어. 그는 인자를 천 대까지 지키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사하시느니라.”(출 34:6, 7)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크”(욘 4:2)다. 자비.” (미가 7:18).

3)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하심이 충만하신 줄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실수를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4:4.

답: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곧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수많은 표징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셨습니다.

자연의 사물과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부드러운 세상의 유대를 통해 그분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사랑을 불완전하게 나타냅니다. 이 모든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원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엄격한 정의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존재, 즉 극단적인 심판자,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집가로 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창조주를 사람들의 잘못과 결점을 분별하고 심판하기 위해 의심하는 눈으로 살피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화요일

1)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주신 가장 큰 계시는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어. 1:1, 3.

답: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는 자기 영광의 광채시요 자기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 나타내신 이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이시니라." (요한복음 1:18).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27). 제자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라고 묻자 예수께서는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대답하셨다.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랴 하느냐?"(요한복음 14:8, 9)

예수께서는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나를 보내셨다. (누가복음 4:18) 이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탄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집에서도 질병의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 전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시며 그들의 모든 병자를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신성한 기름부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연민이 그분의 생애의 모든 행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감동되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들도 그분께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분께 데려왔고 그들은 그분의 무릎에 앉아 그분의 사려 깊고 친절하며 사랑이 넘치는 얼굴을 바라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한 마디도 숨기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가장 큰 재치와 사려 깊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고, 결코 불필요하게 거친 말을 하지 않으셨으며, 민감한 영혼에게 불필요한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지만 항상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위선과 불신과 불법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엄숙히 책망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그분이 사랑하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그들은 구주이신 그분을 거절했지만 그분은 그들을 동정심 어린 친절로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돌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모든 영혼이 소중했습니다. 그는 항상 신적인 위엄을 가지고 행동했으며, 하나님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게 가장 부드러운 보살핌을 주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인 모든 사람에게서 타락한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형

아버지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신성한 동정심의 근원이었으며, 이 동정심은 인간의 자녀들에게 흘러갔습니다.

부드럽고 자비로우신 구주이신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셨습니다. (딤후 3:16).

수요일

1)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17.

답: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살고, 고통받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슬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세상에서 떠나 죄로 훼손되고 병들어 죽음과 저주의 그늘이 드리워진 세상으로 보내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품, 천사 송배를 떠나 수치와 모욕, 굴욕, 중오와 죽음을 겪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형벌이 그분에게 내려졌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53:5)

광야에서, 겐세마네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야기한 끔찍한 분리를 그의 영혼 속에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것에서 빼앗아 갔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매트. 27:46).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죄의 짐, 죄의 끈적함, 그것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진 분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2)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에프. 2:4, 5; 요한복음 16:26, 27.

답: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나 이 큰 희생은 아버지의 마음에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창조하거나 기꺼이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3:16).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큰 속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타락한 세상에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부여하실 수 있는 수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고후 5:19).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고통과 갈보리의 죽음에서 무한하신 사랑의 성심께서 우리 구원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때문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17) 즉,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내가 너희를 구속하려고 내 생명을 주었으므로 나를 더욱 사랑하시느니라. 내 생명을 버리고, 너희의 한계와 죄를 떠맡는 데 대한 너희의 대리자이자 보증인이 된 나는 내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내 희생을 통해 하느님께서 공의로우실 수 있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1)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3:16

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만이 그분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무한대 이하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은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그분은 그분을 사람들 가운데 살며,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의 희생을 치르도록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인류의 이익과 필요와 동일시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인간의 자녀들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니라”(히 2:11). 그분은 우리의 희생제물이시며,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우리의 형제이시며,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영원토록 그가 구속하신 인류와 하나가 되시는 인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죄의 파멸과 타락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거룩함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요일

1)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는가? 요한일서 3:1

답: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를 보라.” 알메이다 번역을 개정하고 업데이트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지불된 대가, 즉 우리를 위해 죽도록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희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고상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은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았을 때 경배와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위대함과 부드러움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를 찾을 수 없었던 그는 세상에 이를 묵상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1). 이 말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가! 범법을 통해 인간의 자녀들은 사탄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신앙을 통해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써 인간성을 높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와 연결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명상하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12).

토요일

그러한 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왕의 자녀들아! 소중한 약속! 가장 깊은 명상을 위한 테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길 데 없는 사랑! 이 생각은 영혼을 정복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만든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신의 성품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의와 공평이 결합된 더 많은 자비와 부드러움과 용서를 보게 될 것이며, 무한하고 동정심 많은 사랑의 무수한 증거를 더욱 분명하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한 동정심보다 우월한 부드러움, 반항적인 아이.

1)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까? 말라기 3:6; 이모. 1:17.

답: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인간의 유대는 모두 사라질 수 있지만,
친구가 친구에게 불성실할 수도 있고,
엄마는 애정표현을 그만둬도 되고,
하늘과 땅은 제거될 수 있다.
하지만 변화는 없어
당신은 여호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2과 -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함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2장 - 엘렌 G. 화이트.

황금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일요일

1)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창 1:31

답: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_____

2)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수욕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11:3; 계 12:9.

답: "뱀이 하와를 속였다".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

인간은 원래 고귀한 능력과 균형잡힌 지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분은 본성이 완전하셨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생각은 순수했고 그의 열망은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의 능력은 왜곡되었고, 이기심이 사랑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본성은 범죄로 인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그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땅을 저주와 황폐로 채우는 것이 유혹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악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요일

1)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가? ROM. 8:7

답: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함이라.”

2)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죄인이나, 사람을 피하여 숨는 것이 하나님이나?

장군. 3:9, 10.

답: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주의 소리가 동산에 들렸으므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골 2:3)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은 후에 더 이상 거룩함의 기쁨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는 거룩한 존재들과의 교제를 피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이타적인 사랑의 영, 즉 무한한 사랑의 마음에 해당하는 각 마음은 그 영혼에서 공명하는 화음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관심, 동기는 죄 없는 주민들에게 작용하는 것과는 멀어질 것입니다. 그는 천국의 멜로디에서 불협화음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그에게 고문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빛이신 분에게서 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쁨의 중심입니다. 죄인들을 천국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부적합으로 인해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소멸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멸망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의 얼굴에서 숨길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1)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1:21; 사도행전 4:12.

답: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빠져 있는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주나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14:4; 롬 8:7).

2)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Jer. 13:23.

대답: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악을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문화, 의지의 행사, 인간의 노력은 모두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외적인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을 정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기 전에,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영혼의 죽은 기능을 소생시켜 하나님께로, 즉 거룩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마음과 새 소망과 목적과 동기를 받아 새 삶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3). 자연적으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선을 발전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것이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라.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전 2:14; 요한복음 3:7).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었느니라.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으며",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유일한 이름"이었습니까(요한복음 1:4; 사도행전 4:12).

수요일

1)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루크. 4:14, 16-19.

답: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사...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르시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을 인식하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품성의 아버지다운 부드러움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율법의 지혜와 공의를 분별하고 그것이 영원한 사랑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나는 선한 율법에 찬성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나 그는 괴로움과 절망에 빠진 자신의 영혼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팔렸도다”(롬 7:16, 12, 14). 그는 순결함, 즉 자신이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을 바랐으며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 이것이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의 무거운 마음에서 나온 부르짖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2)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고후 5:18.

답: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진리를 설명하고 죄의 집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애쓰신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에서를 속인 죄를 지은 후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죄책감으로 몸이 굽어졌습니다. 그가 외롭게 버려져 자신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서 분리된 채, 다른 모든 것보다 그의 영혼을 억압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의 죄가 그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시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천국, 그는 슬픔에 잠긴 채 맨땅 위에 누웠고, 주변에는 외로운 산들만이 있었고, 별이 빛나는 하늘 위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잠들자마자 이상한 빛이 그의 시야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 있던 곳에서 시작하여 어둡고 넓은 계단이 바로 천국의 문 위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영광이 내려오는 동안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신성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그의 영혼의 필요와 갈망을 충족시키는 구원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밝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인 예수를 상징했습니다.

목요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서 헤가 저서 유숙하는 곳에 이르러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자기 머리에 두고 그가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더라.” 장군. 28:10-

12.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다니엘과의 대화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요한복음 1:51)고 말씀하셨을 때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배도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땅과 하늘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친교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은 다시 한번 하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들어낸 심연 위에 다리를 놓으셨고, 섬기는 천사들이 인간과 계속 교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을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위한 희망과 도움의 유일한 원천을 제쳐 둔다면 진보에 대한 인간의 꿈, 인류의 고향을 위한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야고보서 1:17)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 외에는 품성의 탁월함이 없습니다.

1)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고린도전서 1:24.

답: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요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온유한 자비로 너를 이끌었다.” 31:3.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이 땅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주심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한 선물로 부어 주셨습니다. 구주의 삶과 죽음, 중보, 천사들의 성역, 성령의 간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사역, 하늘에 계신 존재들의 끊임없는 관심,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5:14, 15, 17.

답: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우리를 위해 치러진 놀라운 희생을 묵상해 봅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하늘이 쏟아 붓고 있는 수고와 에너지에 대해 감사하는 경험을 하도록 합시다. 올바른 행동에 대한 탁월한 보상, 천국의 기쁨, 천사들의 교제, 아버지와 아들의 친교와 사랑,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능력의 고양과 확장 등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강력한 동기와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께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 죄에 대해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는 보응, 우리의 품성의 타락, 그리고 최종적인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사탄의 섬김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토요일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롬. 5:20, 21.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분이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봉사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조화와 교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된 수단을 활용합시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수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계 22:17.

답: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협력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필. 2:12, 13.

답: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3과 - 회개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3장 - 엘렌 G. 화잇.

황금절: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마 4:17).

일요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함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쳤던 군중이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첫 마디는 "회개하라"였습니다. (행 2:38).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 3:19).

1) 누가 주님의 긍휼을 받을 것인가? 잠언 28:13.

답: "자기의 허물을 덮어 두는 자는 영원히 형통하지 못하되 자백하고 떠나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느니라" 자비를 얻으리라."

회개에는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죄의 죄성을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에게서 돌아설 때까지는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슬퍼하고 심지어 외적인 개혁을 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행동이 그들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올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죄보다는 고난을 슬퍼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장자권을 영원히 상실한 것을 보았을 때의 슬픔이었습니다. 발람은 칼을 뽑은 채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천사를 보고 겁이 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목적의 전환도, 악을 미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주를 배반한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죄를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7:4).

끔찍한 정죄감과 두려운 심판의 환상으로 인해 그의 죄 많은 영혼은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그에게 닥친 결과는 그를 공포로 가득 채웠지만,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성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깊고 가슴 아픈 후회는 없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을 받을 때 장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재앙이 그치자마자 하늘을 거역하는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이들 모두는 죄의 결과를 슬퍼했지만 죄 자체로 인해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2)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 16:8.

답: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을 죄에 대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굴복할 때 양심은 깨어날 것이며,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기초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깊이와 신성함을 어느 정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오는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요한복음 1:9)는 영혼의 은밀한 방을 비추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납니다. 확신이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죄인은 여호와의 공의를 깨닫고 자신의 죄와 불순함을 가지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 앞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의 아름다움, 순결함의 기쁨을 봅니다. 그는 깨끗해지고 천국과의 교통이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월요일

1) 참된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7:10, 11.

답: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사람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너희에게 이 일이 얼마나 많은 근심을 안겨주었는고! 그 분노와 두려움과 그리움과 열심과 복수심이 얼마나 큰지! 모든 면에서 당신은 이 사업에서 당신의 순수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윗이 타락한 이후에 드린 기도는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의 회개는 진실하고 깊었습니다. 그의 죄책감을 달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판의 위협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기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오염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싫어했다

죄. 그는 죄 용서를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거룩함의 기쁨, 곧 사람들과의 조화와 친교를 회복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의 영혼의 언어였습니다: (시 32:1, 2) - “불의가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친절에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크신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씻어라.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유행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허가 주의 의를 찬양하리이다.” (시 51:1-14)

이와 같은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사람에게 회개를 허락하시는가? 회개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받는 것인가? 사도행전 5:31.

답: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왕과 구주로 높이셨느니라.”

화요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조. 6:37.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으며,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회개가 죄 용서에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이 구주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까?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미덕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에서 이 주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이와 구주를 삼으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행 5:31). 그리스도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을 일깨워 주는 그리스도의 영 없이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선한 충동의 원천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한 적의를 마음에 심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진리와 순결을 추구하는 모든 열망,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한 모든 확신은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 12:32).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에게 구세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목상하자마자, 구원의 신비가 우리 마음에 펼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인이 이 사랑을 보는 순간, 그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동을 주며 영혼에 통회를 불러일으킵니다.

1)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조. 15:5.

답: "나[예수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들이 때때로 자신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고 있음을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죄악된 길을 부끄러워하고 습관을 일부 바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하려는 진지한 소망으로 스스로를 개혁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무의식적인 영향이 영혼에 작용하고 양심이 일깨워지며 외적인 생활이 수정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끄시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죄가 찌른 그분을 보도록 이끄실 때 계명은 양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삶의 사악함,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둔 죄가 그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하고 “죄가 무엇이기에 그 희생자를 속량하기 위해 그러한 희생을 요구하는가?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굴욕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요구된 것입니까?”

죄인은 이 사랑에 저항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 이끌리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께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십자가 아래에서.

수요일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니라”(롬 1:1). 2:4(개정 및 업데이트된 미국 번역).

자연계에 작용하고 있는 동일한 신성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인간이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갈망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당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오직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곧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의 기쁨을 찾도록 간청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통해 우리 구주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불만족스러운 죄의 쾌락에서 벗어나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려고 헛되이 애쓰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성한 기별이 전해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계시록 22:17).

마음속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당신은 이 소망이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에게 회개를 주시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순결 가운데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나타내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구주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인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완벽하게 예시되었습니다. 자비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그분의 영혼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구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1)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루크. 18:10-14.

답: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도다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며 이 세리라도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채찍질하느니라 가슴에 이르되 하나님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에 내려갔느니라 저 사람은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삶이 옳았고, 우리의 도덕적 품성이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일반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출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불순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행위를 오염시킨 동기의 이기심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참으로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것과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 그리스도의 순결의 광채가 영혼을 관통하여 모든 얼룩과 더러움을 고통스럽게 뚜렷하게 하고 인간 품성의 기형과 결점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욕망, 마음의 불충실, 입술의 불결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죄인의 불충성한 행위가 그의 눈에 드러나고 그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찰하심 아래서 감동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 없는 품성을 보자마자 자신을 혐오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자기에게 보냄을 받은 하늘의 사자를 둘러싸는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압도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더 이상 힘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빛이 변하고 흥해졌으며 기력이 없어졌나이다”(단 10:8). 이렇게 감동받은 영혼은 이기심을 미워하고 자기애를 미워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품성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의 순결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율법의 의에 관하여” – 그의 외적인 행위에 관한 한 – 그는 “흠이 없는 자”(빌 3:6)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영적인 성격이 밝혀지자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외적인 삶에 적용하는 율법의 문자에 따라 판단해보면 그는 죄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신성한 교훈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것과 같은 자신을 보았을 때, 그는 굴욕을 느끼며 몸을 굽히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롬 7:9). 그가 율법의 영적인 본질을 보았을 때, 죄의 참된 극악함이 드러났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졌습니다.

목요일

1)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가? 루크. 18:13, 14.

답: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자기 집으로 가고 저 사람도 마시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같은 규모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죄의 정도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이런저런 잘못된 행위가 아무리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가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십니다. 술꾼은 멸시를 받고 그의 죄가 그를 천국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반면에 교만, 이기심, 탐욕은 거의 언제나 비난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특히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분의 품성의 자비로움,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분위기 자체인 극기의 사랑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죄 중 하나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수치심과 가난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주려고 오신 무한한 축복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기도한 불쌍한 세리. (누가복음 18:13) 그는 자신을 매우 악한 사람으로 여겼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같은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필요를 느꼈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은혜로운 일을 행하고 그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하고 독선적인 기도는 그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에 닫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완전함과 대조적으로 자신이 오염되었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필요도 느끼지 않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죄성을 알게 된다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올 만큼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더 나아지기를 희망합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익숙하면서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예레 13:23). 오직 하나님 안에만 우리를 위한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설득이나 더 나은 기회, 더 신성한 기질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합니다.

2)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히브리어. 10:26, 27.

답: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우리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불의 무서운 기다리움이 있을 뿐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죄의 과도한 죄성은 오직 십자가의 빛 안에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죄인을 쫓아내실 수 없다고 주장할 때 갈보리산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이 없이는 인류가 죄의 더러운 세력에서 벗어나 거룩한 존재들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영적인 생명에 다시 참여하는 자 -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고통과 죽음은 모두 죄의 끔찍함을 증거하고, 영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3)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루크. 12:47.

답: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나도 그들만큼 훌륭합니다. 그들은 나만큼 자기희생적이지도, 자제하지도, 행위에 있어서 신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나만큼 쾌락과 방종을 좋아해요.”

그러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의무 태만의 구실로 삼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와 결점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인간 모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길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삶과 더 고상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렇게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죄는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들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기를 거부합니다.

금요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퍹케 하지 말라” 히브리서 4:7.

미루는 것을 조심하세요. 당신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순결을 구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기가 바로 수천, 수만 명이 잘못된 길로 빠져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된 곳입니다. 나는 여기서 인생의 짧음과 불확실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위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하는 음성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고 죄의 삶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러한 지연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비록 작은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무한한 손실의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간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이기고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작은 문제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점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불변하는 율법을 범한 것이며,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죽음과 저주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대대손손 땅에서는 계속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로 피조물 전체가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하며 방황했습니다. 하늘도 당신의 반역의 영향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갈보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속죄하기 위해 요구된 놀라운 희생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죄를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마시다.

모든 범법 행위,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자신에게 반작용하는 것이며, 마음을 강퍹하게 하고, 의지를 타락시키고, 이해력을 둔하게 하며, 여러분이 양보하려는 마음을 덜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온유함에 굴복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원할 때마다 악의 행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한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자비의 초대를 무시하면서도 계속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영을 원망한 후에, 사탄의 편에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한 후에, 극심한 어려움의 때에 그들의 진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 쉽게 달성되지 않습니다. 경험과 삶의 교육은 품성을 완전히 형성했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나쁜 성격 특성, 한 가지 죄악된 욕망을 끈질기게 품고 있어도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모든 죄악된 방종은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혐오감을 강화시킵니다. 완고한 불신앙이나 신성한 진리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만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죄인이 “자기 죄의 줄로 매이리라”(잠 5:22)는 현자의 말보다 악을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그 의지를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범죄로 인해 의지 자체가 전적으로 악에 빠져 있고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달리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파멸시켰습니다. “보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고후 6:2; 히 3:7, 8).

명상하려면: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__

토요일

1)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까?

계 3:19.

대답: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사람은 겉을 보거나 나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인간의 마음은 기쁨과 눈물이라는 상반된 감정, 반항적이고 잘못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 그분은 여러분의 동기와 의도, 목적을 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있는 그대로 더럽혀진 채로 그분께로 가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모든 것을 보시는 눈 앞에 여러분의 방을 활짝 열어 놓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시고 내 생각을 아옵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 139:23, 24)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 친절의 한 형태인 지적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대하십시오. 자신의 필멸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처럼 진지하고 끈기있게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 자신의 영혼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영원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가정된 희망 그 이상은 그 희망을 파멸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는 거룩함의 위대한 원칙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죄의 극악함을 깨닫자마자,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자마자 -
절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 놀라운 사랑이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후 5:19)십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죄 많은 자녀들의 마음을 구하고 계십니다. 지상의 어떤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인내하시는 것만큼 자녀들의 실수와 결점에 대해 인내하실 수 없습니다.

범죄자에게 이보다 더 부드럽게 간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입술이 방랑자에게 그분보다 더 부드러운 간구를 표현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약속과 경고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탄식일 뿐입니다.

2)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에게 크든 작든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38, 39, 21.

답: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및 하나님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탄이 와서 당신이 큰 죄인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구속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공로에 대해 말하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분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되, 원수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딤후 1:15)는 것과 당신은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시몬에게 두 명의 빛진 사람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에게 작은 빛을 켜고, 다른 사람은 많은 빛을 켜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 다 용서했고 그리스도께서는 빛진 사람이 그의 주인을 더 사랑할 것인지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가장 많이 용서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눅 7:43). 우리는 큰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의 공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바치기에 충분합니다. 그분께서 가장 많이 용서하신 사람들은 그분을 가장 사랑할 것이며 그분의 보좌 가까이에 서서 그분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희생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

죄의 죄성을 더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놓여진 사슬의 길이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 마음은 녹아서 애뜻함과 통회하게 됩니다.

4과 - 고백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4장 - 엘렌 G. 화잇.

황금 구절: “나는 내 죄를 당신께 자백하고 내 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 죄악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32:5.

일요일

“자기의 허물을 덮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으리라”(잠 28:13).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한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하나님께 바치거나 우리의 범법을 속죄하기 위해 길고 지친 순례를 할 필요가 없으며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야고보서 5:16)고 말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잘못도 서로에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친구나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하며, 당신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처를 준 형제는 주님의 소유이고 그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창조주이자 구속주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앞에 제기됩니다. 그분은 “우리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히 4:15) 분이십니다. , 그리고 모든 불의의 얼룩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II 샘. 12:13.

답: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도 꾀뚫으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

1)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은 무엇인가? II 크로. 7:14.

답: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겸비하게 하지 않은 자들은 받아들여지는 첫 번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는 가운데 영혼의 참된 굴욕과 영의 상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화평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죄의 고백은 진실하고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으로 죄인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경박하고 부주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죄의 끔찍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짐을 덜어내는 고백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에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는데도” (시 34:18)라고 말합니다.

화요일

1)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레위기 5:5.

답: “그러므로 만일 그 사람이 이 일 중 하나에 죄가 있으면 자기가 범한 일을 자복하라.”

참된 고백은 항상 특정한 성격을 가지며 특정한 죄를 인식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고백해야 할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백은 명확하고 명확해야 하며, 당신이 범한 동일한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국가를 이끌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분별력을 잃었으며, 그분의 대의를 옹호하고 변호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위대한 통치자에게서 돌아서서 주변 나라들처럼 통치받기를 원했습니다. 평안을 찾기 전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삼상 12:19).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동일한 죄를 자백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배은망덕은 그들의 영혼을 억압하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내 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여호와께 내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32:5.

수요일

1) 고백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잠언 28:13.

답: “자기의 허물을 덮어 두는 자는 영원히 형통하지 못하거나 이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으리라.”

진실한 회개와 개혁이 없이는 고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완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그만 두십시오.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의를 실천하고, 압제자를 꾸짖어라. 고아의 권리를 변호하며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라”(사 1:16, 17). “만약 악인이 전당물을 갚으며 도둑질한 것을 갚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죄악을 범치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겔 33:15). 바울은 회개의 일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심에 빠진 여러분이 이 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근심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변호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열심이며, 얼마나 옹호합니까! 이 모든 일로 너희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고후 7:11).

2) 악한 길에서 돌아켜 떠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예스. 18:21, 22.

답: “만일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아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공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는 정녕 살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의로 살 것이다.”

목요일

1)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포. 3:17.

답: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이고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가 도덕적 지각을 침묵시킬 때,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성품의 결함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저지른 악의 극악함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에 굴복하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부분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은 진심이 없고 결단력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마다 자신의 길을 변명하는 변명을 덧붙이며, 특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로 인해 비난을 받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첫째, 그의 유일한 생각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변명하고 무서운 죽음의 선고를 피할 것인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의 죄에 관해 물으셨을 때, 아담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부분적으로는 그의 동무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아내로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말했습니다.

뱀이 나를 꺾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13). 뱀은 왜 만들었나요? 왜 그녀를 에덴에 넣으려고 했나요? 이러한 질문은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자신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내포된 질문이었습니다. 자기 정당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버지에게서 유래되었으며,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 이런 순서의 고백은 신성한 영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비난하게 하고, 거짓이나 위선 없이 그것을 인정하게 할 것입니다.

불쌍한 세리처럼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않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의롭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보혈로 간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호세. 7:19.

답: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서 자복하라. 그리고 당신이 행한 일을 지금 나에게 말하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금요일

1) 다니엘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줄이려고 했습니까? 단 9:4-15.

답: “그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고 패역하여 주의 계명과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세계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정의는 당신께 속해 있지만, 얼굴의 혼란은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온 이스라엘 곧 원근 각처에서 그들을 쫓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거역하여 반역함을 인함이라 여호와여, 우리의 능욕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비와 용서;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맹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었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음이라 이에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느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온 천하에 이루어진 일이 없었느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 죄악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에 의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리셨으니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도다 자 그럼, 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이름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며 우리는 죄를 지었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 9:4-15.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진정한 회개와 겸손의 예는 죄에 대한 변명이나 자기 정당화의 시도가 없는 고백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가장 어두운 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죽였을 때 나는 이들에 반대하여 투표했습니다.

나는 각 회당에서 그들을 자주 형벌하고, 심지어 신성모독하는 말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심히 노하여 낫선 성읍들로까지 쫓아가니라.”
(사도행전 26:10, 11)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으니 죄인 중에 내가 과수니라”(딤후 1:15)고 선언했습니다.

토요일

1)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했나요? 루크. 15:17-21.

A.: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꾼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빵을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리라 하늘과 당신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신문 배달원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늘과 당신 앞에서 대적하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진정한 회개로 극복된 겸손하고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보리의 대가를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었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2)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얼마나 가까이 용서하시겠습니까? 루크. 15:20, 22-24.

A.: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다.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빨리 가져오십시오.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십시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라.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5과 - 봉헌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5장 - 엘렌 G. 화잇.

황금 구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시편 37:5 (개정 및 수정된 미국 번역).

일요일

1)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그분께 거룩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ROM. 6:19.

답: "너희 육신이 악하므로 내가 사람의 말과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지체를 내어 더러운 것을 섬기게 하며 불의를 악으로 드린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로 섬겨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 29:13)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변화가 결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모든 머리가 아프고 모든 마음이 아프고" "그 안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사 1:5, 6). 우리는 사탄의 울무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의 뜻을 행하시려고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되셨느니라"(딤후 2:26).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변화, 즉 우리 본성의 완전한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자아와의 전쟁은 지금까지 치른 가장 큰 싸움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의 뜻에 맡기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2) 바울은 자신의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여자. 2:20.

답: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월요일

1)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도록 강요하시는가, 아니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가? 그것은 주었다. 30:19.

답: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정부는 사탄이 보여주듯이 맹목적인 복종과 비합리적인 통제에 기초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성과 양심에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드신 존재들에게 하신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현명하고 자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순한 강제 복종은 정신이나 품성의 모든 진정한 발전을 방해할 것입니다. 인간을 단순한 자동 기계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창조 능력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이 가능한 최고의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높이시려는 축복의 높이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초청을 주시는가? 호세. 24:15.

답: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에게든지 혹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에게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화요일

1)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명기 7:1-6.

답: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네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에게 쳐서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계약을 맺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도 그들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 자녀를 내게서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진노하사 속히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형상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베어버리고 그들의 조각한 형상들을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주께서는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누가복음 14:33)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맘몬은 많은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부를 향한 욕망은 그들을 사탄에게 묶는 금사슬입니다. 명성과 세속적인 명예는 다른 계층에 의해 숭배됩니다. 이기적인 안락함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다른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예화의 유대는 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 그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각으로 감동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천국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종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실 때, 영혼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과의 교통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분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목상하면서 자아는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행동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표준을 요구하지 않고, 구속주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진지한 열망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의 가치에 비례하는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오류이고, 무미건조한 형식이며, 무거운 짐입니다.

2)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고후 5:14, 15, 17.

답: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판단하시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산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일이 다시 이루어졌느니라.”

수요일

“보라, 한 청년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아직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해지고 싶으면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16-22.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을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과 사랑과 고통 등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인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축복에 참여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준 무지와 비참함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가지고 있는 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찢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모든 사랑과 희생을 기꺼이 취소하시겠습니까? 영광의 주님의 무한한 굴욕을 바라보며 우리는 갈등과 극기를 통해서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불평할 것입니까?

목요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24, 25.

많은 교만한 마음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을 갖기 전에 왜 내가 회개하고 굴욕을 당해야 합니까?”입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더욱이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죄가 되었느니라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중재하였느니라.”

(이사야 53:12)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무엇을 포기하게 됩니까? 죄로 오염된 마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깨끗케 하시고, 비길 데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것도 부끄럽고, 글을 쓰기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자녀의 행복을 염두에 두십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스스로 찾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자신의 영혼에 가장 큰 해를 끼치고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피조물들의 유익을 위해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길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범죄의 길은 비참함과 파멸의 길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마태복음 16:26.

1)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Jer. 29:11.

답: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가 바라는 결말을 주기 위한 생각이요 재앙이 아닌 평안의 생각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품는 것은 실수입니다. 하늘 전체는 인간의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피조물 중 어느 누구에게도 기쁨의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요구 사항은 우리에게 고통과 실망을 가져오고 행복과 천국의 문을 닫게 하는 방종을 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불완전함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구속을 확보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위하여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과 안식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분께서는 불순종한 자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축복의 높은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의무만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영혼의 참되고 즐거운 생활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형성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 것입니까? 이사. 55:8, 12.

답: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를 받으리라”.

금요일

“나는 진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판단을 따르기로 나섰습니다.” 시편 119:30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도덕적 능력이 약하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최악된 생활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과 결심은 모래의 흔적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충동, 애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깨뜨린 약속과 이행되지 않은 서약을 알게 되면 당신 자신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실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진정한 의지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는 힘, 결정의 힘, 선택의 힘이다. 모든 것은 의지의 올바른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자신의 애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당신의 뜻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모든 본성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애정은 그분께 집중될 것이며, 당신의 생각은 그분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토요일

1)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호세. 24:15.

답: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함과 거룩함에 대한 욕구는 그 자체로 옳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들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동안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지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당신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그리스도께 굴복 시킴으로써 당신은 모든 권력과 권세 위에 있는 능력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행복함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삶, 바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습니까? 소금. 37:5; 시 119:173.

답: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준비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수정 및 수정된 알메이다 번역).

레슨 6 - 믿음과 수용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6장 - 엘렌 G. 화이트.

황금절: "또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집". 사도행전 16:31.

일요일

1) 혈루병 여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루크. 8:46-48.

대답: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기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예수께 다가가서 그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곧 낮게 된 경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당신의 양심이 성령에 의해 깨어나자마자 당신은 죄의 악의와 그 능력, 죄책, 저주에 대한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증오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죄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고 느끼십니까?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탈출하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의 무력함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동기는 불순하다. 당신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과의 유사성,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용서, 하늘의 평화, 영혼 속의 사랑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성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돈 없이 값 없이"(사 55:1) 선물로 당신에게 주십니다. 당신이 손을 뻗어 붙잡지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겔 36:26).

당신은 당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분께 가서 즉시 당신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을 믿었을 때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일을 도우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분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사실을 충분히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서

네 집이라”(마태복음 9:6). 전도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31).

월요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간단한 기록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해 그분을 믿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중풍병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불쌍한 환자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팔다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주님, 저를 낫게 하시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이 건강해졌음을 믿고 즉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걷고 싶었고, 걸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제정신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죄인입니다. 과거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을 섬기려는 당신의 의지를 내어드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이 용서받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은 마치 중풍병자가 자기가 나왔다고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믿으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온전해졌다고 느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은 왜 아브라함의 삶에서 성취되었는가? ROM. 4:17-21.

답: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거의 백 세가 되어가면서 이미 죽은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

화요일

1)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2:5.

답: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2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았다고 믿을 수 있으며,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깨끗해지고,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이 울법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5:17.

답: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일이 다시 이루어졌느니라.”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18, 19). 하나님을 믿는 이 간단한 행위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으니 돌아서거나 그분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매일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나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분의 성령을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골 2:6)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누구든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15:4, 5, 10.

수요일

1)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약속하셨는가? 조. 3:16.

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축복을 구하기 전에 시련을 받아야 하며 자신들이 개혁되었음을 주님께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그분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악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고 무력하고 의존적인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오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약점, 어리석음, 죄악을 가지고 나아와 회개하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팔로 감싸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2) 예수님은 몇 명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고후 5:15.

답: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 용서가 거침없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것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회개하는 모든 범법자를 위한 것입니다. 힘과 은혜는 섬기는 천사들을 통해 믿는 모든 영혼에게 전달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힘과 순결과 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죄가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그들의 옷을 벗기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죽지 말고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목요일

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딤후 2:4.

답: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한한 인간이 서로 협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자비와 사랑과 부드러운 연민의 생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은 그 생각을 떠나게 하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용서하심이 풍성하시니라 “내가 너희 허물을 안개 같이, 너희 죄를 구름 같이 닦아 버리리라”(사 55:7, 44:22).

“나는 사람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살아 있으라”(겔 18:32). 사탄은 즉시 하나님의 축복된 보증을 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혼으로부터 모든 희망의 빛과 모든 빛을 빼앗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께서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남용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헛된 것임을 생각하면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당신의 일꾼으로 대해 주십시오.' 비유는 말한다

잃어버린 사람을 받는 방법: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18-20).

그러나 이 비유조차도 부드럽고 감동적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한한 동정심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인자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예레미야 31:3). 죄인이 아직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낯선 나라에서 자신을 낭비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영혼 속에 일깨워진 모든 갈망은 다름 아닌 그분의 영의 부드러운 탄원이며, 간청하고 탄원하며 빛나간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그를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이사야 12:2.

금요일

“또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30-32.

당신 앞에 성경의 풍성한 약속이 있는데도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까? 불쌍한 죄인이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그의 죄를 버리기를 갈망할 때, 주님께서 그가 회개하여 그분의 발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제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품는 것보다 더 당신 자신의 영혼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보다 더 강하고 더 부드러운 언어가 사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여자가 어찌 자기 젖 먹이는 아이를 잊고 자기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 하리라”(사 49:15).

1)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실까? 시 51:17.

답: “하나님을 위한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오 하느님, 당신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토요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승천하신지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지키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동정하실 수 없는 분, 그러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4-16.

의심하고 떨고 있는 그대여,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영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읽으자마자, 그것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무한한 사랑의 위대한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죄인을 향해 이끌립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엡 1:7).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도우미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인간 속에 있는 그분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고백과 회개로 그분께 다가갈 때, 그분은 자비와 용서로 당신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 그분에게 나아오라고 그분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까? 히브리서. 4:16.

답: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 이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도움을 받게 하려 함이라.”

7과 - 제자도의 시험

기본 텍스트: "정로의 길 책", 7장 - 엘렌 G. 화잇.

황금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14.

일요일

1)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자. 2:20.

답: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래된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전체를 추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과정의 일련의 상황; 그러나 이것이 그녀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고,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습니다."(요한.

3:8).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보고 느껴지는 바람처럼,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재생력은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그 효과는 명백합니다. 만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다면, 생활은 그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행을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격, 습관, 목표에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 사이의 대조가 명확하고 결정될 것입니다. 품성은 가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관습적인 말과 행동의 경향에 따라 드러납니다.

2) 삭개오가 회심한 결과 무엇을 말하였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루크. 19:8, 9.

답: "삭개오가 일어나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도 외적인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향력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열망은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우리가 악의 모양을 피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관대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나요? 우리의 가장 열렬한 애정과 최고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분과 함께 있고 우리의 가장 감미로운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존재는 그분께 봉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갖고, 그분의 영을 호흡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합니다.

월요일

1)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은사를 받나요? 여사. 3:14.

답: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2) 신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받는가? ROM. 8:1, 14.

답: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 23)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성품을 반사하며 그분의 순결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것들을 싫어합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허영심이 많고 교만한 사람은 진지하고 온건해집니다. 술취한 사람은 진지해지고, 방탕한 사람은 순수해진다. 세상의 헛된 관습과 유행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장”을 구하지 않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옷으로 연합하여 마음의 속 사람”을 구합니다(베드로전서 3:3, 4).

그가 개혁을 수행하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없습니다.

전당물을 돌려주면, 흠친 것을 돌려주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죄인은 자기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새로운 경험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9.

답: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방향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의 용서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 마음속에 사랑이 탄생합니다. 모든 의무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과하시는 멍에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즐거움이 됩니다. 한때 어둠으로 덮여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길은 의의 태양의 광선으로 밝아집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랑스러움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우리 구주의 생애를 지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분의 모든 행동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그것을 낳을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요일 4:19).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에서는 사랑이 행동의 원칙이 됩니다.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충동을 다스리며, 열정을 다스리고,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애정을 고상하게 해줍니다. 영혼 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삶을 즐겁게 만들고, 주변의 모든 것을 정화하는 영향을 줍니다.

화요일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그분의 은혜를 이제 막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첫 번째는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기심과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성도들.

1)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인간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해방시키는가? ROM. 3:31.

답: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합니까? 절대로! 오히려 우리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 반대이자 덜 위험한 오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므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ROM. 6:14.

답: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나 여기서 순종은 단순한 외적인 목인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의 본성의 표현입니다. 이는 사랑의 원리를 구현한 것이며, 따라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에 심어진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원칙이 마음에 심어질 때,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될 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히 10:16)는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그것이 삶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순종, 즉 사랑의 봉사과 복종은 제 자도의 참된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요일 5:3, 2:4). 사람을 순종에서 해방시키는 대신,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믿음, 오직 믿음뿐입니다.

수요일

1) 사람이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여사. 5:6.

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요일 3:5, 6). 실제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교훈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우심과 같이 의로우니라”(요일 3:7). 정의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10계명에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표준에 의해 정의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킨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주제넘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엡 2:8; 약 2:17).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법이 내 마음 속에 있나이다”(시 40:8).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노라”(요한복음 15:10)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은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하여야 하리라”(요한일서 2:3-6).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전서 2:21).

2)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이모. 2:18, 20.

답: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목요일

1)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16, 17.

답: “보라, 한 청년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싶으면 계명을 지키라.”

영생의 조건은 이제 언제나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하기 전 낙원에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조건에서 영생이 보장된다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저주와 비참함과 함께 죄가 불멸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의로운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를 행하지 못하였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였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라. 우리는 죄 많고 불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지상에 사셨습니다. 그는 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당신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이 최악이었을지라도 그분 때문에 당신은 의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품성을 대신하며, 당신은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그리고 당신의 의지를 그분께 지속적으로 항복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의 이러한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소망하고 행동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생활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0).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20).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면 여러분도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같은 일, 즉 의로움과 순종의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2)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28, 29.

답: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금요일

1) 사람을 의롭다 하고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ROM. 10:9, 10.

답: “즉,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마음 속에 분명히 해야 할 구별이 있습니다. 믿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은 사탄과 그의 군대도 마음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야고보서 2:19)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의지를 복종시키는 곳입니다.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애정을 쏟는 곳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지 아니한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였고(실제로 굴복할 수도 없었음) 이제는 그의 거룩한 계명을 즐거워하여 시편 필자: “내가 당신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것이 나의 온종일 묵상입니다!”(시편 119. 97). 그리고 율법의 의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롬 8:4)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2)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 후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2:1.

답: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세계”.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생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결점 때문에 여러 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패해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요일 2:1).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요한복음 16:27)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그분과 화해시키고 그분 자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당신 안에 반영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께 굴복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온전히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한 확신을 잃을 때, 우리 구속주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하여 우리 얼굴의 건강이 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계속 신실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2:13.

토요일

1)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디모데전서 1:15, 16.

답: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이를 위하여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사 그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당신의 눈에는 당신의 부족함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비전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고, 당신의 불완전성은 그분의 완전한 본성과 넓고 뚜렷한 대조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가 힘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생시키는 영향력이 당신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영혼은 그분의 신성한 품성을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했다는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덜 감사할수록 우리 구주의 무한한 순결함과 사랑스러움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한 비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그분은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감각이 우리를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이끌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 더 높은 견해를 갖게 될 것이며 그분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2) 고뇌와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마가복음 9:23-26.

답: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병어리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흔들며 나갔다. 그 아이는 죽은 것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서니라.”

제8과 -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8장 - 엘렌 G. 화잇.

황금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일요일

1)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 테스. 4:3; ROM. 6:22.

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가 뿌린 좋은 씨앗이 싹트는 것에 비유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사람들은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베드로전서 2:2; 엡 4:15)합니다. 예수. 아니면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심으신 의의 상수리나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사 61:3)고 말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삶의 신비한 진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자연적인 삶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2)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즈. 20:12.

답: “그리고 나는 또한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을 삼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모든 지혜와 기술로는 자연의 가장 작은 물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 주신 것은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이 인간의 마음에 생성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요한복음 3:3) 그리스도께서 주려고 오신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마찬가지로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꽃이 되도록, 꽃이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마지막에는 이삭에 가득한 알갱이”(마가복음 4:28).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곡식처럼 살아나고 포도나무처럼 번성할 것입니다”(호 14:5, 7).

월요일

1) 우리는 누구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0.

답: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것이 되었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누가복음 12:27)라고 권유하십니다. 식물과 꽃은 자신의 보살핌, 불안, 노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공급하신 것을 받아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어떤 불안이나 힘으로도 자신의 키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불안이나 자기 노력으로는 영적 성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식물과

아이야, 주변에 있는 것으로부터 받아들여면서 성장하라.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 즉 공기, 햇빛, 음식. 이러한 자연의 선물이 동물과 식물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영원한 빛”이시며 “해와 방패”이십니다 (이사야 60:19; 시 84:11)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을 것이다. “그는 추수한 밭에 내리는 비처럼 오시리라”(호 14:15; 시 72:6). 그분은 생수이시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요한복음 6:33)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아들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은 지구를 순환하는 공기만큼 실제적인 은혜의 분위기로 세상을 둘러싸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장성한 성장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꽃이 태양을 향하여 밝은 광선이 꽃의 아름다움과 대칭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듯이, 우리도 의의 태양을 향하여 하늘의 빛이 우리를 비취 우리의 품성이 계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4, 5). 당신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즐거움의 가지인 것처럼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의존합니다. 그분 외에는 당신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유혹에 저항하거나 은혜와 거룩함 속에서 성장할 힘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당신은 번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에게서 끌어내세요.

시들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5.

대답: "나[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일부 작업을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제는 의롭게 살기 위해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격의 모든 노력은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안에서의 성장, 기쁨, 유용성,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은 매일, 매시간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 즉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입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첫째요, 마지막이요,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과정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가 항상 내 앞에 있으시이다. 그가 내 우편에 서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시 16:8).

화요일

1)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ROM. 1:17.

답: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 너희도 처음에 그를 영접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골 2:6; 히 10:38). 당신은 완전히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죄를 속죄할 수도 없고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해주신 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느니라.

여수. 당신은 모든 것, 즉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 당신의 봉사를 그분께 내어 그분의 모든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축복의 총만인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고 너희의 힘과 의와 영원한 조력자가 되시며 너희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리라.

2)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합니까? 시 37:5.

답: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침에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이것을 첫 번째 활동으로 삼으세요. 당신의 기도는 다음과 같게 하십시오. "주님,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되도록 데려가 주십시오.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두오니 오늘 나를 당신의 봉사에 사용하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매일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맡겨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실행되거나 버려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은 매일매일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갈 것입니다.

수요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28-30.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안식의 삶이다. 감정의 황홀감은 없을지라도 지속적이고 인내심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희망은 당신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그분의 강함과 결합되고, 당신의 무지는 그분의 지혜와 결합되며, 당신의 연약함은 그분의 끈질긴 강함과 결합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에게 마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격. 극기하신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비길 데 없는 사랑을 지닌 그리스도, 이것이 영혼의 관상을 위한 주제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휴식, 안정, 자신감이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다시 그분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28, 29) 시편 기자의 말에도 같은 생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평안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느니라”(시 37:7; 사 30:15)라고 확신을 줍니다. 이 휴식은 활동하지 않을 때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주의 초대에는 휴식에 대한 약속이 일하라는 부르심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가 쉬를 얻으리라”

(마태복음 11:29).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안식하는 마음은 그분을 위해 일하는 데 가장 헌신적이고 활동적인 것입니다.

1)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하려면 누구에게 생각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히브리어. 12:2, 3.

답: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심령이 약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마음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힘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탄은 계속해서 구주께 주의를 돌리게 하여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 인생의 염려, 난관과 슬픔,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우리 자신의 결점과 불안정함 중 하나 또는 전부에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의 간계에 속지 마십시오. 그는 매우 자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참으로 양심적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며,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을 우리 힘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영혼의 관리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자아를 잃어버리십시오. 모든 의심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일축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여러분이 그분께 드린 것을 그분께서는 능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여러분을 정복자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목요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6-8.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을 때, 인간 자신의 선택 외에는 어떤 힘으로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인류를 자신에게 묶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을 가할 것입니다.

이 유대를 끊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켜보고, 싸우고, 기도해야 할 곳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른 영주를 선택하도록 유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일을 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과 같으니라”(고전 3:18).

이것이 바로 첫 제자들이 사랑하는 구주를 닮게 된 방법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찾고, 발견하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식탁에서, 방에서, 들판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과 함께 제자로서 그분과 함께 다니며 날마다 그분의 입술에서 거룩한 진리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배우기 위해 주인의 종으로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야고보서 5:17). 그들은 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똑같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일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랑받는 제자이자 구주의 형상을 가장 온전하게 반영한 요한조차도 천성적으로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명예를 위해 허영심이 많고 야망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기분이 상하면 성급하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지식으로 인해 겸손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 생활에서 본 힘과 인내, 능력과 부드러움, 위엄과 온유는

그의 영혼을 감탄과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였고 마침내 그는 그의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자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야심적이고 분개하는 성격은 그리스도의 형성하는 능력에 굴복되었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영향력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은 품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의 확실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모든 자연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영혼을 굴복시키며, 생각과 소망을 하나님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금요일

1)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어떻게 성화되고 성령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13, 14.

답: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과 예수의 형제 유다가 있더라 제임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쓰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도 그분의 임재에 대한 느낌은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빛으로 가득 찬 개인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위안을 불어넣었던 구세주 예수께서는 평화의 기별이 아직 그분의 입술에 있을 때 하늘로 올라가시며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천사들의 구름이 그를 영접하자마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며 여전히 그들의 친구요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의 동정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고통받는 인류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치르신 대가를 기념하여 상처 입은 손과 발을 보이시며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승천한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자신들의 청원을 아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엄숙한 두려움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다음과 같은 확신을 반복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한복음 16:23, 24). 그들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점점 더 높이 뻗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그리고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리라”고 말씀하신 보혜사의 임재를 그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요한복음 14:17; 16:7).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계속 거하실 것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은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빛을 발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또 자기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행 4:13).

토요일

1) 예수님께서 과거에 사도들을 거룩하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 13:8.

답: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게 어떠하셨던 모든 것이 오늘날 그의 자녀들에게도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지막 기도에서 작은 무리의 제자들이 그분 주위에 모였을 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요한복음 17:20).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연합입니까! 구주께서는 자신에 대해 “아들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한복음 5:19; 14:1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면, 그분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빌 2:13)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일할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엡 4:15).

레슨 9 - 일과 생활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9장 - 엘렌 G. 화잇.

황금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일요일

1)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38, 39.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이는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입니다. 햇빛처럼, 살아있는 샘에서 터지는 물줄기처럼 축복이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랑과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인간을 고양하고 구속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천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굴욕적인 봉사여기고, 비참하고 모든 면에서 품성과 지위가 열등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죄 없는 천사들의 사업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이기적인 사랑의 영은 하늘에 퍼져 있는 영이며 천국 기쁨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소유할 정신이며, 그들이 행할 사업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달콤한 향기처럼 마음 속에 짜여지면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거룩한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광야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케 하여 멸망하는 자들이 생명수를 탐내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인류의 축복과 고양을 위해 일하려는 열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부드러움, 동정심과 보살핌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월요일

구주의 지상 생활은 안일하고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인류의 구원을 위해 끈질기고 헌신적이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유에서 갈 보리까지 그분은 극기의 길을 따르셨고 힘든 일, 피곤한 여행, 지치는 보살핌과 수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애의 유일하고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이며 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과 음식이었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이익은 그분의 사업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1) 바울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고린도후서 12:15.

"나는 당신을 점점 더 사랑하지만 덜 사랑받더라도 당신의 영혼을 위해 가장 가까이 돈을 쓰고 내 자신을 소비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다른 사람들도 하늘의 선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정신은 진정으로 개종한 영혼의 확실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오자마자, 그가 예수님 안에서 찾은 소중한 친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 속에 생겨났습니다. 구원하고 성화시키는 진리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성령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았다면 우리에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이 구주를 만났을 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면전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매력과 다가올 세상의 보이지 않는 현실을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헌신적인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계획에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 결과 동료 인간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예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수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화요일

1)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고린도전서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와 사랑을 전하는 모든 일을 하늘 천사들에게 맡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하게 하여 이 사심 없는 봉사에서 나오는 축복과 기쁨과 영적 고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모든 자기희생 행위는 자비의 정신을 강화시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를 세상의 구주와 더욱 밀접하게 연합시키십시오. 그분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창조 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할 때에만 생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

1)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할 은사와 책임을 주셨는가? 에페. 4:11-13.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다 오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셨느니라”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일하고 영혼을 그분께로 인도한다면, 그대는 신성한 사물에 대한 더 깊은 경험과 더 큰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며,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당신의 영혼은 구원의 샘에서 더 깊은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반대와 투쟁의 만남은 당신을 성경과 기도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며,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비이기적인 노동 정신은 품성에 깊이와 안정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스러움을 더해 주고, 그 소유자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열망은 높습니다. 게으름이나 이기심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영적 통찰력, 확고하고 성장하는 믿음, 기도의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신성한 손길에 반응하여 영혼의 신성한 조화를 일깨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비이기적인 노력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1)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합니까? 디모데전서 4:13, 16.

“읽기를 계속하고 권면하며 가르치라...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며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과 동일한 일을 사심 없이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는 일에 우리 능력이 닿는 데까지 전념하는 것입니다. . 힘은 운동을 통해 나옵니다. 활동은 바로 삶의 조건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의 수단을 통해 오는 축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단지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기 위해. 그리고 자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이는 항상 퇴화와 악화를 초래합니다. 팔다리 운동을 거부하는 사람은 곧 팔다리를 사용할 모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갖고 있던 힘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기관이다. 그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재능과 기회의 범위 내에서 구주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주시기 위해 빛을 주셨습니다.

금요일

1)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3월 16:15.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일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의무에 깨어 있었다면 오늘날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수천 명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재산과 동정심, 기도로 이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서는 영혼들을 위한 헌신적인 노동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2)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 위해 이방인의 땅으로 갈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우리의 책임이 있는 곳이라면 집이라는 좁은 범위를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지상 생애의 대부분은 나사렛에 있는 목수 작업장에서 참을성 있게 일하시며 보내셨습니다. 섬기는 천사들은 생명의 주님께서 농민과 일꾼들과 나란히 행하실 때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광을 받지도 못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을 때나 갈릴리의 폭풍우 위를 걸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비천한 직업에서 일하실 때에도 그분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겸손한 의무와 가장 낮은 위치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견고 일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느니라”(고전 7:24)고 말합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행해지는 모든 일에 그의 신앙을 가지고 갈 것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기 계공은 갈릴리 산간에서 비천한 삶의 길에서 일하신 그분을 부지런히 충실하게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선행을 보고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구속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일해야 합니다.

토요일

1) 예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는 교인과 예수님을 모르는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고린도전서 12:17-22.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에 있겠느냐 온 몸이 듣는다면 냄새를 맡는 것은 어디에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은 그 뜻대로 지체를 몸에 두셨으니 각각 그 뜻대로 하셨느니라 지체는 다 하나인데 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쓸데없다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몸의 가장 약해 보이는 지체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뛰어난 은사와 장점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그들의 은사를 바치는 일을 회피했습니다. 특히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쳐야 한다는 의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능이 오직 선호하는 계층에게만 주어지고 노동이나 보상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종들을 불러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겼습니다.

사랑의 영으로 우리는 "주께 하듯"(골 3:23) 겸손한 삶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랑은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기가 우리를 둘러쌀 것이며 우리의 영향력은 고양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거나 비범한 능력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일상 생활이 당신 신앙의 순결함과 진실성에 대한 간증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 한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의 노력은 완전히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선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무의식적인 영향으로 그들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축복의 파도를 시작할 수 있으며, 마지막 보상의 날까지 축복받은 결과를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성공에 대한 불안으로 지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한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침착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며, 그리하여 다가올 생애의 더 큰 일과 참된 기쁨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0과 -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10장 - 엘렌 G. 화잇.

황금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일요일

1)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영광에 대해 어떻게 우리의 감각에 말씀하시는가? 시 19:1-3; ROM. 1:19, 2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어느 날이 다른 날에게 진술을 하고, 어느 날 밤이 다른 밤에게 지혜를 보여줍니다. 언어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그들의 목소리만 들리는구나.” “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창조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우리를 그분과 교통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에 말합니다. 영형

열린 마음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깊은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 깊은 귀는 자연의 사물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푸른 들판, 우뚝 솟은 나무, 새싹과 꽃, 지나가는 구름, 내리는 비, 시냇물 소리, 하늘의 영광은 우리 마음에 말을 걸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알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

우리 구주께서는 그분의 귀중한 교훈을 자연의 것들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나무, 새, 계곡의 꽃, 언덕, 호수, 아름다운 하늘, 일상의 사건과 환경이 모두 진리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 교훈이 인간의 바쁜 노동 생활 속에서도 여러 번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월요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이 하신 일을 감상하고 그분이 우리의 지상 가정을 장식하신 단순하고 차분한 아름다움을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외적인 매력을 지닌 그분은 품성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수함과 단순함, 꽃의 조용한 우아함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1)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들을 묵상한 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시 104:24, 27, 28, 31.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다양한지요 주께서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으니 땅은 주의 부요로 가득하다... 사람마다 주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기를 기다리나니 주는 것은 그들이 거두느니라 ; 주께서 손을 펴시니 복이 가득하리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행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로다!"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은 우리에게 순종과 진리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여행을 하는 별들로부터 세기를 거듭하여 정해진 길을 따라가며 가장 작은 원자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만물은 창조주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유지하십니다. 광대함을 통해 무수한 세계를 지탱하시는 분은 동시에 두려움 없이 겸손한 선율을 노래하는 작은 갈색 참새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사람들이 매일의 일을 하러 나갈 때나 기도에 전념할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와 아침에 일어날 때; 부자가 자기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 때나 가난한 사람이 빈약한 식탁에 자기 자녀들을 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을 다정하게 보살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치채지 않으시면 눈물이 흘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미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과도한 불안은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염려로 인해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 부담을 지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영혼의 안식을 누리야 합니다.

당신의 감각이 지구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는 동안, 세상을 생각하십시오. 장차 올 것은 죄와 사망의 열락을 결코 알지 못하리니 자연의 표면이 더 이상 저주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곳입니다. 당신의 상상이 구원받은 자의 집을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가장 높은 상상이 묘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가장 희미한 빛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느니라"(고전 2:9)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과 자연주의자는 자연에 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땅의 아름다움을 더 큰 감사로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일을 인식하고 꽃과 풀과 나무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산과 계곡, 강과 바다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보지 않고는 누구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요일

1)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고린도전서 2:10; 조. 1:18.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적인 사역과 마음에 미치는 성령의 영향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웃,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분별한다면 귀중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묘사하면서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도다”(시 33:5)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것들을 생각하며 여호와와 공경을 깨달으라”(시 107:43).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행동, 그리고 위대한 구속 사업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고대의 다른 성자들의 역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욕심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야고보서 5:17).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낙담을 이겨냈는지, 그들이 어떻게 우리처럼 유혹에 빠졌는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기를 얻고 승리했으며, 그들을 지켜봄으로써 우리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 용기를 연습합니다.

그들이 받은 귀중한 경험, 그들이 누리도록 주어진 빛과 사랑과 축복,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로 성취한 일을 읽을 때, 그들에게 영감을 준 영은 우리 마음에 거룩한 동기의 불꽃을 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성품을 갖고 싶고, 그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수요일

1)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구를 알아가야 합니까? 조.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대해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에도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나를 증언하는 자라”(요한복음 5:39), 구속자,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그 안에 두시는 분 중심.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라는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마지막 약속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계 22:12)까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구주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뜨거운 갈증을 해소해 주는 생수입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살아 있는 빵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요한복음 6:53, 63)고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자연적 경제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본성에 활력과 활력을 주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제는 천사들이 참석하기를 원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세기 동안 구원받은 자들의 지식과 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 희생은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구속주이자 중보자의 성품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의 사명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주제를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많이 섞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점점 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들은 총명하고 열정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지속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매일매일 살아 있는 경험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완전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영혼의 굽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더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분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말하게 될 것이며 세상에 그분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1)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알려고 노력해야 하나?
ROM. 14:12; 사도행전 17:11.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성경은 연구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위대한 진리는 대낮처럼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히 밝혀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속임을 당하거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약해지고 우리의 능력은 저하될 것입니다.

정신의 고상한 능력은 집중할 만한 주제에 대한 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너무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의 심오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경 주제의 관계를 탐구하고,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고,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면 마음은 확장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지성을 강화하는 데 더 잘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광범위하고 고상한 진리만큼 생각을 고상하게 하고 능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그토록 강력한 책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연구한다면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넓은 정신, 고상한 품성, 목적의 확고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1)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합니까? 이사. 28:13.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명 위에 명령을, 계명 위에 계명을, 통치 위에 통치를, 통치 위에 통치를 더하여 여기가 조금, 저기가 조금이 되리라.”

그러나 성경을 성급하게 읽어도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거나 그 깊고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마음에 명확해지고 구원의 계획과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까지 연구하는 구절은 명확한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긍정적인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여러 장을 정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읽어 보십시오. 기억 속의 텍스트를 수정하세요.

길을 걸을 때에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렬한 관심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너무 명확해서 오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했다; 그러나 그 의미가 표면에 있지 않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과 비교되어야 한다. 기도와 함께 주의 깊은 연구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는 풍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광부가 땅 표면 아래 감춰진 귀금속 광맥을 발견하는 것처럼,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찾는 사람은 부주의한 탐구자의 눈에 숨겨져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에 묵상한 영감의 말씀은 생명샘에서 흘러나오는 급류와 같을 것이다.

토요일

1)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이해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2:10.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결코 기도 없이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페이지를 열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dana엘이 예수께 왔을 때 구주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느니라.”

나dana엘이 “당신은 나를 어디서 아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요한복음 1:47,48)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분의 빛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은밀한 장소에서도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빛의 세계의 천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신성한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구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의 순결함과 그분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큰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 그분의 임무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한복음 16:14)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은

신성한 진리를 가르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교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영을 인류의 교사이자 끊임없는 인도자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제11과 - 기도의 특권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11장 - 엘렌 G. 화잇.

황금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빌립보서 4:6.

일요일

1)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하라고 권고하시나요? 나 테스.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연과 계시를 통해, 그분의 섭리를 통해, 성령의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분께 마음을 쏟아야 하며,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얻으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업과 자비와 축복을 목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분과의 교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해 그분께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의 청원을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확신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필요와 약점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그분은 의무와 시련을 위해 힘을 얻어 나가기 위해 아버지께 새로운 힘을 구하는 간구자, 거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형제이십니다. "그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흠 없으신 분처럼 그분의 본성은 악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분은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문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기도를 필수이자 특권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의 교제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들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는데, 하물며 연약하고 죄로 가득 찬 필멸의 인간들도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성을 얼마나 더 느껴야 하겠습니까?

월요일

1)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간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9.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총명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한한 사랑의 샘물을 깊이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게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겸손한 자녀들의 진실한 기도를 기꺼이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기꺼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 사항을 하나님께 알리기를 꺼리는 모습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갈망하며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적다면, 유혹에 넘어가는 가련하고 절망적인 인간들을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너무 적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땅의 자녀들은 성령의 빛, 곧 성령의 동반 없이 걷는데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의 임재.

악한 자의 어둠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원수의 제안된 유혹은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기도라는 신성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저장되어 있는 천국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에 있는 열쇠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기도하기를 그토록 꺼리겠습니까? 끊임없는 기도와 부지런한 경성이 없으면 우리는 부주의해지고 곧은 길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가 열렬한 간구와 믿음으로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자비의 보좌로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화요일

1)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테스.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4:3)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만족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의 영향을 받기 위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큰 필요는 그 자체로 논쟁거리가 되며 가장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7)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알려진 죄에 집착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 하고 통회하는 영혼의 기도는 언제나 받아들여진다. 알려진 모든 오류가 수정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추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은 그분의 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락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을 어떻게 아뢰어야 합니까? 이모. 1:6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기도를 이기는 또 다른 요소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확실성은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제때에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류가 많고 근시안적이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이 될 것, 즉 우리가 신성한 깨달음의 비전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응답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것에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혜로우셔서 실수하지 않으시며, 너무 선하셔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 7:7)라는 그분의 확실한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수요일

1) 쉬지 않고 기도한 결과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루크. 18:7, 8.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의를 베푸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그 의를 풀어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상담하거나 명확하게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당혹감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력감을 느끼고

우리는 진실로 의존적이며, 겸손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식이 무한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그의 뜻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알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있고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한하신 분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우리 구속주의 얼굴이 동정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를 동시에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에 보이는 손길을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손은 사랑과 자비로운 부드러움으로 우리 위에 있습니다.

2)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15.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구하러 갈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태복음 6:12)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화해하지 않는 정신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정도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경험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롬 12:12; 골 4:2).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근신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라”(베드로전서 4:7)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빌 4:6).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유 20,21)고 유다는 말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영혼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연합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순결함과 거룩함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기도에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멈추게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의 열린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일반적으로 기도가 드리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구하는 자들은 기도회에서 보일 것이며,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열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빛의 광선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입니다.

목요일

1)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단 6:10.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가족 단위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은밀한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한 영혼이 번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기도와 공개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탐색하시는 하느님의 시선에 영혼이 열리도록 하십시오.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청원을 엿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밀한 기도를 통해 영혼은 환경의 영향과 동요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침착하지만 열렬하게 그녀는 하나님께 다가갈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열어 주시는 분에게서 나오는 감화는 온유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조용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혼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신성한 빛의 광선을 흡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을 여러 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의 귀한 향처럼 은혜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사탄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간이나 장소가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들어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리의 군중 속에서, 상거래 중에도 느헤미아가 왕 앞에 요청을 제출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기도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에 하늘의 손님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초청을 높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오염되고 부패한 분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장기를 호흡할 필요가 없고 천국의 순수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올림으로써 우리는 불순한 상상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에 대한 모든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여는 자는 이 땅보다 더 거룩한 분위기에서 살며, 하늘과 끊임없이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뚜렷한 견해를 갖고, 영원한 현실의 가치에 대해 더 넓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취되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

영혼이 확장되고 고양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분위기를 불어넣어 주시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분께로 향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꽃은 태양을 향해 변합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십시오. 당신은 그분께 과부하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피곤하게 할 수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은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비와 자비가 총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야고보서 5:11).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심지어 우리의 슬픔 표현에 감동을 받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오십시오. 그분이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세계를 유지하고 우주의 모든 일을 다스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평화와 관련된 어떤 것도 그분이 주목하실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의 어느 장(章)도 그분이 읽기에 너무 어두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해결하시기에 너무 어려운 난제란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어떤 재난도 닥칠 수 없으며, 그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근심도 없고, 기쁨의 함성도 없고,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차리지 못하시거나 그분의 직접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시느니라. 그분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시 147:3). 하나님과 각 영혼 사이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다른 영혼이 없는 것처럼 뚜렷하고 완전합니다.

금요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요한복음 16:26, 27).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15:16).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시작과 끝에서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은혜 안에 안식하며, 그의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영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1)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이었는데? 마태복음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배 행위에 전념하기 위해 은수자나 수도사가 되거나 세상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삶은 산과 군중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곧 그 일을 그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의무 영역, 십자가를 지는 일에서 물러날 때; 그들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그칠 때, 그들은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스스로 박탈하고 헌신할 동기를 잃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됩니다. 그들은 인류의 필요나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으며 함께 일할 힘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서로를 강화하고 격려하는 특권을 등한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진리는 마음 속에서 그 활력과 중요성을 잃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결하게 하는 영향력으로 계몽되고 깨어나지 않으며 영성은 쇠퇴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동정심의 부족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자신을 달는 사람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의 사회적 요소를 적절하게 배양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고, 이는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더욱 강해지는 수단이 됩니다.

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골로새 3:12-16.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깊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또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며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너희 마음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귀중한 진리를 말한다면, 그들 자신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서로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매일 더 많이 배우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질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훨씬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가 있는 만큼 자주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분을 생각 속에 간직하게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이 그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상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무한히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그분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한 선물을 주신 것은 그들이 우리의 생각을 흡수하고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이것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을 상기시켜 주고, 우리를 하늘의 후원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끈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에 매우 붙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열린 문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장) :25).

토요일

1)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골로새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는 “그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야 합니다(시 107:8). 우리의 헌신은 구하고 받는 것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에 대해 생각하고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가난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고대에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므로 너희와 너희 집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뻐하라”(신명기 12:7).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슬픔과 우울함이 아닌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찬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드럽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므로 그분을 섬기는 일을 고통스럽고 슬픈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구원을 예비하신 자녀들이 마치 힘들고 힘든 일꾼처럼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며, 그들이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봉사에서 위로를 찾고, 그분의 봉사에서 고난보다 더 큰 즐거움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분의 보살핌과 사랑에 대한 귀중한 생각을 가지고 일상 생활의 모든 일에서 기뻐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처리하는 은혜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주위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힌 그분은 묵상과 대화, 우리의 가장 기쁜 감정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모든 것을 기꺼이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영혼은 찬양의 날개를 타고 천국에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궁정에서 찬송과 노래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는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우리를 하늘의 군대에 대한 예배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나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라”(시 50:23). “감사와 찬송”(사 51:3)으로 창조주 앞에 경건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레슨 12 - 의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12장 - 엘렌 G. 화잇.

황금절: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비틀거린다고 하였더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도다”(시 94:18).

일요일

1) 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까? 옴 42:1-4.

“옴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주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사오며 주의 뜻은 무엇이든지 막으실 수 없는 줄을 아나이다 무식히 모략을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을 말하였나 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기묘한 일이라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말하겠고 내가 네게 물으리니 네가 나를 가르치라”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회의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설명할 수도,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만약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이러한 의심과 당혹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충분한 증거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의 진리는 모두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증언에 의해 확립됩니다. 이 증언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의심의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증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많은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한한 마음이 무한하신 존재의 성품과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예민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기에 거룩한 존재는 항상 신비에 싸여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비를 풀겠습니까, 아니면 전능자의 완전함에 침투하시겠습니까? 그의 지혜는 하늘의 높음과 같으니라.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녀는 심연보다 더 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옴 11:7, 8).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富)가 깊도다!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분의 길은 측량하기 어렵도다!” (롬 11:33). 그러나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지라도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시 97:2).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그분이 일하시는 이유를 너무나 잘 이해하여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힘으로 결합된 사랑과 자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능하신 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29:29.

월요일

1) 성경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사. 45:15.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요 구원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성한 저자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존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제시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 그리스도의 성육신, 중생, 부활, 그리고 성경에 제시된 많은 다른 주제들은 인간의 마음으로 설명하거나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깊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계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는 가장 현명한 철학자라도 설명할 힘이 없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경이로움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영계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것입니까? 어려움은 오로지 인간 마음의 약함과 협소함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섭리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알기 어려운 일이 있으니 무식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곡해하여...자기 멸망에 이르느니라”(베드로후서 3:16)고 말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성경의 난점을 성경에 반대하는 논거로 인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일 그 안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 주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유한한 마음으로 그분의 위대함과 위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은 신성한 권위에 대한 틀림없는 신임장을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드러난 주제의 위대함과 신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함과 인간 마음의 필요와 욕구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진리를 계시하므로 가장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감탄과 매혹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겸손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하게 선언된 진리는 너무나 고상하고 범위가 너무 광대하며 무한히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문제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속의 경륜이 우리 앞에 펼쳐졌으니 이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해야 할 단계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이러한 진리 아래에는 그분의 영광이 숨어 있는 신비, 즉 탐구하는 마음을 압도하는 신비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진실하게 추구하는 사람에게 경외심과 신앙을 고취시킵니다. 그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그것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의 확신은 더욱 깊어지며, 인간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의 위엄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화요일

1)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사. 40:28.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명철은 한이 없으시니라.”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유한한 마음이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한된 인간 지식으로 전지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의론자와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신비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이 이 점에 있어서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믿지 아니하는 비뚤어진 마음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히 3:12). 성경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깊은 것”(고전 2:10)을 탐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느니라”(신 13:1).

29:29). 그러나 사단의 일은 마음의 조사 능력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한 고찰에는 어떤 교만이 뒤섞여 있어서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참을성이 없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영감받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리가 그들에게 편리하다고 보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 지혜만으로도 성경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실상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파생된 것으로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많은 이론과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고 사실상 일반적인 영감 방법에 반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과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피조물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 지점에 도달하면 진리에 관해 더 이상 발견할 것도 없고 지식의 발전도 없고 정신이나 마음의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최고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식과 성취의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골 2:3)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의 보화를 고갈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수요일

1)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10, 12.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성령은 만물 곧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생에서도 그분의 말씀의 진리가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11, 10). 그리고 구주께서는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한복음 16장) :13 및 14).

하나님은 사람이 추론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는 다른 어떤 연구에서도 할 수 없는 정신을 강화하고 고양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성의 약함과 나약함에 영향을 받는 이성을 신격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이해에 담겨서 가장 분명한 진리도 이해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단순성과 신앙을 갖고 기꺼이 배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겸손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마치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성은 자신보다 더 큰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마음과 지성은 위대하신 '자존자(I AM)'에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거나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왜곡하거나 곡해하게 됩니다. 유익 없이, 그리고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해를 끼치는 성경 읽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함과 기도 없이 열릴 때 생각과 애정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거나 그분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마음은 의심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연구할 때 회의론은 더욱 강해집니다. 원수가 생각을 장악하고, 옳지 않은 해석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며 성경의 설명을 신뢰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일치를 찾기 위해 성경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많은 원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목요일

1)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히브리어. 3:18, 19.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우리가 보니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비록 위장되어 있을지라도 의심과 회의의 실제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제한은 교만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환영하지 않으며, 그 요구 사항에 순종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진리에 도달하려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과 진리에 가까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풍부한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만들어 줄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교훈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17)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헐뜯는 대신, 이미 당신을 비추고 있는 빛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신이 이해한 모든 의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1)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방금 그분에 대해 들었습니까? 나 존. 1:1-3.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은 생명의 말씀이니라(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으므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영원하신 것을 너희에게 전함이라)”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노라.”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가장 문맹인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경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분의 약속의 정직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시편 34:8)라고 초대하십니다. 남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분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요한복음 16:24)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총명한 사랑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의 의심과 어둠은 그분의 임재의 빛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하나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골 1:13)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참되시다”(요한복음 3:33)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에게서 도움을 찾았습니다. 모든 필요는

공급을 받아 내 영혼의 배고픔이 만족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묻나요? -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신성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성경을 믿는가? - 나는 그녀가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참되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을 우리 자신 안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우화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1)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리 전체를 단번에 배우게 됩니까, 아니면 지식이 자라야 합니까? 골로새서 1:10.

“너희가 주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베드로는 그의 형제들에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베드로후서 3:18)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신성한 진리에서 새로운 빛과 아름다움을 분별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사에서 사실이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사실일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서 대낮의 광명에 이르느니라”(잠 4:18).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인간의 능력이 신성과 연합하여 지력을 발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빛의 근원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영혼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설명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마음이 혼란과 깨어진 목적만을 발견한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둡게 보나니 그러면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이제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될 것이다”(고전 13:12).

제13과 - 주님 안에서 기뻐함

기본 텍스트: "정로의 정로 책", 13장 - 엘렌 G. 화잇.

황금절: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다 즐거이 노래하라. 시편 33:1.

일요일

1)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5:14, 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어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참된 성품을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사랑을 모르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18, 23).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 분명하니”,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고후 3:3, 2).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 각자를 통해 세상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당신이 살고 있는 가족, 마을, 거리에 편지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 페이지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의 참된 대표자라면, 당신을 통해 사람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설득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빛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에게 비치는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활과 품성은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봉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는 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시 100: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면 그분의 봉사를 있는 그대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그림자와 슬픔을 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거짓된 표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인상을 주며, 이로써 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거짓 간증을 퍼뜨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절망으로 이끌 수 있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실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을 동정심과 동정심이 부족한 분으로 대표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분에 관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생각으로 상상을 채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관한 진리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는 대신, 우리는 종종 사탄의 거짓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사탄은 항상 신앙생활을 그림자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종교의 비전을 제시할 때, 그는 자신의 불신을 통해 사탄의 거짓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허물과 실망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들고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낙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유럽에 있는 동안 이 일을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자매가 나에게 격려의 말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밤

당신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정원에 있는 꿈을 꾸었는데, 정원의 주인인 듯한 누군가가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꽃을 따며 그 향기를 즐기고 있었는데, 내 옆에서 걷고 있던 이 자매가 길을 막고 있는 흉하고 가시가 많은 식물들에 내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도자를 따라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켜 가운데로 걷고 있었습니다. "오!" 그녀는 "이 아름다운 정원이 가시덤불에 뒤덮인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런 다음 안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므로 옆에 두십시오. 장미와 백합과 카네이션을 수확해 보세요."

1) 시편 기자는 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합니까? 시 117:1, 2.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양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다"

당신의 경험에 좋은 점은 없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여 가슴이 쿵쿵쿵쿵 똥 소중한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인생 경험의 장들을 되돌아보면 즐거운 페이지들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향기로운 꽃처럼 당신이 가는 길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이 당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도록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영경귀와 가시덤불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해칠 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것들만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전생의 모든 불쾌한 기억, 즉 죄악과 실망을 모아 낙담에 압도될 때까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낙담한 영혼은 어둠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빛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길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제시한 밝은 그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의 복된 약속을 모두 모아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자신의 신성에 인성을 입혀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승리, 인간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고, 신성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을 인간의 시각에 드러내십니다. 타락한 인류가 죄로 인해 빠져든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져 무한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고, 우리 구속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견디어 그리스도의 의로 옷입고 그의 보좌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목상하기를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화요일

1)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에페. 4:29, 30.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욕되게 하고 그분의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자녀들의 이익을 기대하고 위로를 베풀기 위해 일생을 바쳐왔는데,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듯 끊임없이 불평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이 그의 사랑을 의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자식이 이런 대우를 받는 부모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불신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롬 8: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는 모든 의심의 말은 사탄의 유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속에 의심하는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봉사하는 천사들을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 여러분, 의심이나 어둠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제안에 대해 문을 열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불신과 반항적인 질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당신이 표현하는 모든 의심은 다음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사탄의 유혹과 속임의 시기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향력에 휩쓸린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제안한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과 생명을 주는 것들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하늘에 계신 당신의 주인에 관해 세상에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는지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대화가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살아 계신 분의 대화가 되도록 하십시오. 친구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신의 입술과 마음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이끌릴 것입니다.

수요일

1) 문제로 인해 불안하고 불안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필. 4:6-8.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생각하라.”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시련과 불안,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을 동료 인간에게 말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의심이나 낙담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희망과 거룩한 기쁨의 말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게 하고 그들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극도로 억눌려 자아와 악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용감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려운 전투에서 그녀를 낙담시키지 마십시오. 그녀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의 말로 그녀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에게서 발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14:7) 우리의 무의식적인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낙담하여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따뜻함과 활력이 결여되어 있고, 진지하고 엄격하며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종교적 경험 전체가 이러한 어두운 비전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었지만 웃는 모습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참으로 슬픔의 사람이시며 고난을 아시는 분이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모든 고통에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생애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과 근심으로 뒤덮인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신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고뇌와 불만의 표정을 나타내었지만 언제나 평화로운 평온함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생명의 좋은 원천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안식과 평화, 기쁨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매우 진지하고 확고한 결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울하거나 지루합니다. 그분을 본받는 사람들의 삶은 진실한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개인적 책임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경박함은 억압될 것이다. 시끄러운 재미도 없고 나쁜 농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종교는 강물 같은 평안을 줍니다. 그것은 기쁨의 빛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제한하지도 않고 빛나는 웃는 얼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례하고 불의한 행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놔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연민을 생각한다면 그 동일한 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결점과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겸손과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심을 길러야 하며,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온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소한 이기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관대해지고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1) 고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크. 12:29-31.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런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묻지 말라 마시고 안절부절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이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진리를 먹으라”(시 37:3).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매일매일에는 그 의무와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너무 많은 빌린 고난이 끼어들고,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마음에 깃들고, 너무나 무거운 근심이 표현되어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선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동정심 많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입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두려워하고 빌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을 즐기고 있어 그분의 섭리의 풍성함;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이러한 축복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떤 불쾌한 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어려움은 아무리 작더라도 감사를 요구하는 많은 것들에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그들을 도움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대신 불안과 불평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까? 왜 우리는 배은망덕하고 불신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천국 전체는 우리의 안녕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근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얼굴이 단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전망이 점점 더 암울해질 수도 있으며, 손실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일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손실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리한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은 도움을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도우미를 의지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면, 그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의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는 길에는 위험이 없어요.” 그분은 시련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정직하게 대하십니다. 그 사람은 취할 생각이 없어 그분의 백성은 죄와 악의 세상에서 왔지만 그들에게 확실한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7:15; 16:33).

금요일

1)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애완동물.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교훈은 각 시대를 거쳐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고, 교훈과 위로가 가득한 우리 시대에도 전해졌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생각과 걱정 없이 찬양의 노래를 변조하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26). 인간과 동물의 위대한 공급자께서는 손을 펴서 모든 피조물에게 공급하십니다. 새들은 그분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부리에 먹이를 주시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뿌려주신 곡식을 모아야 합니다.

그들은 작은 등지를 위한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새끼에게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총명하고 영적인 예배자들로서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존재의 창시자, 우리 생명의 보존자, 자신의 신성한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무성하게 자라는 들판의 꽃으로 제자들의 관심을 이끄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풍요로움. 그분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28, 30). 이 천연 꽃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은 솔로몬의 화려함을 훨씬 능가합니다. 예술의 기술로 만들어진 가장 눈부신 장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들의 자연스러운 우아함과 찬란한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28,30. 신성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시드는 단순한 꽃들에게 그 섬세하고 다양한 색깔을 주신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보살핌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교훈은 믿음이 없는 마음의 염려하는 생각과 당혹함과 의심에 대한 책망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모든 아들과 딸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4:27; 15:11).

의무의 길 밖에서 이기적인 이유로 추구하는 행복은 불균형하고 불안하며 일시적입니다. 이 일이 지나가고 영혼은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확실한 길을 걷도록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헛된 비탄과 실망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생의 즐거움은 없지만, 다가올 삶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친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빛과 그분의 임재에서 오는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단계는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복된 평화의 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을 버리지 말고,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확신을 가지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삼상 7:12),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기둥,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파괴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든 부드러운 자비, 즉 그분이 닦아 주신 눈물, 그분이 달래주신 고통, 그분이 제거하신 불안, 그분이 쫓아내신 두려움, 그분이 충족시켜 주신 축복, 그분이 주신 모든 자비를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남은 순례 기간 동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강화시킵니다.

토요일

1)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고린도전서 10:13.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지나간 일과 앞으로 올 일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삼상 7:12)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날이 있는 동안에는 네 평안이 계속되리라”(신명기 13:1).

33:25). 시련은 그것을 견디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오든지 시련에 비례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가 하는 일을 정확히 발견한 곳으로 가져갑시다.

2) 승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약속되나요? Apoc. 21:1-4, 7.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 예비하였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되리라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는 그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발끝에서 발끝까지 천국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것이며, 영광의 왕의 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축복이 그들의 귀에 떨어질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마태복음 25:34).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집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악한 사람들, 거짓말쟁이, 우상 숭배자, 불순하고 불신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완전한 품성을 형성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최악된 경향과 모든 불완전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될 것이며, 태양의 빛을 훨씬 능가하는 그분의 영광의 탁월함과 광채가 그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인 도덕적 아름다움이 그들을 통해 빛나며, 이는 외적인 광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가치를 지닌다. 그들은 어김없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천사들의 존엄과 특권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할 영광스러운 상속 재산을 고려할 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26). 그는 가난하더라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부와 존엄성을 그 자신 안에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정결해진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고상한 능력을 바쳐 매우 가치가 있다. 천국에는 구원받은 영혼을 두고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거룩한 승리의 노래로 표현됩니다.

13일 토요일 특별 할인

브라질 쿠리티바의 분당 건축

이번 분기 열세 번째 토요일 헌금은 브라질 쿠리티바에 있는 제4천사사역 최종경보 본부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됩니다. 현장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네트워크로 설교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며, 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세계 각지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각성되어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하려는 모든 사람의 노력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로 카르발류 목사



사진 1 - 지형 평탄화

사진 2 - 건설 현장 건설 및